

완 간 사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한글 완간본을 모든 불자들과 함께 삼보전에 봉정 하옵니다.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시며,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가산지관 큰스님의 크신 원력이 한글역 완간으로 일차적인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13책으로 완간하게 된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은 삼국시대 이후 한국에서 꽃피운 1700년 한국불교사상의 정수이자 한국사상의 토대와 대들보입니다. 화쟁국사 원효스님, 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의 모범을 보이신 화엄의 대가 의상스님, 청렴한 결사운동으로 한국 선불교를 중천하신 보조국사 지눌스님, 어려운 국난을 이겨내시고 한국불교 교육과 수행 전통을 정비하신 서산 휴정스님을 축으로 하여, 한국불교의 핵심 사상을 전통사상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상총서 불교편에는 화엄, 유식, 정토, 대승계, 선불교, 구도여행기, 불교문화, 고승비문이 정선되어 자세한 학술적인 역주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통사상총서 완간의 의미를 1700년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 전통을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가는 중차대한 노력의 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2600년 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반도에 전해져 무수한 중생의 삶을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국토에서 실현된 결실의 일부가 전통사상총서에 담겨있습니다.

전통사상총서 속에서 우리는 바로 조계종단 집행부의 원력을 확인하고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자성과 쇄신의 결사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수행종풍의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은 바로 선현들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고전을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는 역경불사에서 비롯되기에 사상총서 완간은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영역으로도 간행됩니다. 한국불교의 고전이 영어로 단편적으로 소개된 예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한국불교 사상의 정수를 모아서 영역되는 것은 처음이며, 한글역자와 영역자간의 다자간 상호 검증체

계를 통한 번역의 엄밀성을 시도한 것도 처음입니다.

영역된 한국전통사상총서는 분명히 이제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불교교학과 수행의 진면목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통사상총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도록 전자출판 형태로 공개됩니다. 보시 가운데 가장 수승한 법보시를 통해 한국불교의 지혜와 자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온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불교는 지금까지 중흥의 기틀을 다져왔고 이제 응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완간되는 전통사상총서는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번역, 교정, 제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간행위원, 연구원, 영역자, 교정자, 편집자, 제작자 그리고 사무처의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가산 지관 큰스님의 간행 원력에 수희 찬탄합니다.

이 대작불사의 공덕을 제불보살님과 무량중생에게 회향하며 완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불기 2555(2011)년 7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자승(慈乘)